

한국의 고등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2009. 09. 02. (수) | 임현진(서울대)

"스펙보다 사람 됨됨이가 중요하다." 최근 한 기업의 인사담당자가 올 대졸 취업예정자들에 대한 권고이다. 요즘 입사지원자들을 학점, 토익, 봉사활동 등 서류상으로 보면 모자랄게 없다고 한다. 그러나 실상 직접 면접을 통해 대화하고 토론해 보면, 스펙은 좋아졌지만 인성은 메말라 있다는 아쉬움을 토한다.

장래 학자가 되기 위해 대학원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어떤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의 경우 필수읽기가 영어 자료가 많은 경우 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불평이 일부 담당교수로부터 제기되곤 한다. "발제를 담당하 대학원생이 아예 강의를 들어오지 않거나 자료의 독해가 엉망이라" 토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이다.

오늘의 한국 대학이 양적으로 성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에 걸 맞는 질적인 개선이 뒤따르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길러내지 못한다는 점에서 "공장보다 못한 대학"이라는 비판이 있다. 마찬가지로 대학의 미래를 책임질 학문후속세대의 전공실력이 형편없다는 점에서 "입학후 재교육이 필요하다"는 힐난도 있다.

왜, 한국의 대학이 이 지경일까? 한국의 높은 교육열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해방이후 일반, 산업, 전문 대학에서 나온 졸업생들이 오늘의 한국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끈 주역중의 하나라고 자부하기도 한다. 문제는 고등교육의 외형보다 내실에 있다. 바로 고등교육의 편제와 과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대입 준비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한국의 초등, 중등 교육현실에서 일반 대학생의 '드러난 학력'(manifest achievement)은 좋아보일지 몰라도 '숨어있는 학력'(latent achievement)은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근래 몇 해 동안 우수대학의 합격자들을 보면 텡스나 토플 만점자들이 수두룩하다. 텡스나 토플은 읽기, 말하기, 글쓰기, 듣기 등 영어를 통해 공부를 할 수 있는가를 판정하는 시험이다. 미국대학의 경우 학문 분야별로 다르겠지만, 그에 맞는 요구수준을 갖추면 된다. 영미계 대학에서 토플을 만점 받았다고 특별 우대한다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다. 물론 SAT나 AP는 성격이 다르다. 우리나라 고교졸업생 중에서 만점을 받은 학생의 경우 여러 번 시험을 치른 결과이다. 시간의 낭비요, 자원의 낭비요, 능력의 낭비이다.

일부 대학에서 토플, 토익, 텡스 등 영어평가시험을 입학사정자료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이를 자격요건으로 보지 않고 등급화하여 계량함으로써 일종의 코메디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이야 잘못이 있겠는가. 요즘 대학생들이 우리 세대에 비하면 영어를 포함하여 외국어 실력이 좋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감수성이 예민한 고등학교 시절 동서고금의 역사, 철학, 문학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파악하려고 노력하면 얼마나 좋을까 마는, 오로지 대학입시를 위한 '점수올리기'에 매진해야 하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분명 대입제도에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인다.

대학개혁은 시대적 흐름

이미 오래전부터 세계 여러 나라들이,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 없이, 고등교육의 개혁에 박차를 가해 오고 있다. 그러한 개혁의 바람은 운영체제, 학사편제, 교육재정, 학위제도, 교과과정, 교육방법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있다. 대학 간판만 빼고 거의 모든 것을 바꾸려 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왜 그럴까? 이른바 지구시대를 맞이하여 국제경쟁력 강화를 겨냥한 것이다. 모든 나라들에서 공통적인 사실은 세계화에 대응하여 시대변화를 이끌 수 있는 글로벌 리더 양성에 대한 관심이다. 대체로 미국식 경쟁과 효율을 중시하는 교육 제도와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영국은 CEO형 총장의 영입아래 교육투자를 늘리려 하고 있고, 독일은 전국 열 개의 엘리트 대학을 거점대학으로 육성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프랑스는 대학재정의 자율적 관리와 학위제도의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국립대학의 법인화를 완료하여 자율적 경쟁체제로 돌입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은 200여개의 대학을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의해 골라 세계적 수준의 대학으로 육성하려 하고 있다.

이 나라들은 거의 모두 국제화를 기본 목표로 하여 미국의 명문 사립대학을 모델로 교육혁신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 흥미롭다. 이러한 세계일류를 향한 지나친 대학경쟁력에 대한 집착이 고등교육이 지니는 사회의 균등을 통한 건전한 시민의 양성이라는 대학의 기본 이념을 저해하지 않을까 적지 않은 우려가 든다. 대학이 실용학문 위주로 개편되면서 기초학문의 위축이 일어나고 있다. 대학이 지향하는 미래창발적 인재양성은 먼 얘기가 될지도 모른다.

실제로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영국에서는 경제 능력이 취약한 학생이 대학에 들어가 학위과정을 마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독일에서는 대학들 사이의 양극화와 아울러 기초학문과 응용학문 사이의 긴장이 나타나고 있다. 불란서에서는 재정위기 타파의 방법으로 제시된 교원감축이나 민간지원 등 구조조정예 대한 반발이 매우 거세다.

일본의 법인화된 국립대는 운영체계에서 자율성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대학이 민간의 경영기업을 수용함으로써 공공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응용학문의 경우 민간기업의 지원금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기초학문 분야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대학생의 등록금이 약 3-5배 이상 인상되어 학생들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한다. 중국의 선택과 집중에 의한 200여개의 세계적 대학 육성이라는 야심찬 계획은 일당독재를 전제로 가능한 만큼 매우 특이한 사례이다. 그러나 기존의 국가지원금으로는 국제화를 앞당기는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세계 최고수준의 교수를 유치하고 훌륭한 시설을 갖춘 캠퍼스를 지운다고 하더라도 학문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학의 미래발전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다.

세계의 대학개혁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한국의 대학은 구조개혁이라는 일련의 인사, 제도, 재정 상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 지난날의 양적 성장을 질적 성숙으로 바꿀 수 있는 구조개혁이 그것이다. 미래 한국의 대학이 교육과 연구, 사회봉사와 문화활동에서 국제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에 대해 전향적이어야 한다. 향후 국립대학이 부딪칠 가장 큰 도전은 법인화이다. 법인화에 대해 성공적으로 응전하기 위해서는 국립대가 탈(脫)국립대이후 지향해야 할 대학상(像)을 교육목표, 운영체계, 학사제도, 교과과정, 교육방법 등의 측면에서 총합적 안목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법인화는 단순히 자율신장과 재정확보를 넘어 책임강화와 분권확립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공공성과 형평성 사이의 갈등

교육이 국가 백년대계(百年大計)라는 말이 있다. 10년을 보려면 나무를 심고, 100년을 보려면 교육에 힘쓰고, 1,000년을 보려면 문화를 기르라는 옛말에서 나온 것이다. 실상 교육은 '만인을 위한 공공재'(a public good for all)이다. 한국사회의 미래발전을 위한 견인축으로서 교육의 중요성, 특히 고등교육 기관인 대학의 지식 창출과 전수의 막중한 소명은 아무리 지적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고등교육은 몸살을 앓고 있다. 우리의 대학들은 한편으로 공공성과 형평성을 지켜나기면서 다른 한편으로 수월성과 경쟁력을 키워야하는 이중적 압력아래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기 때

문이다. 일부 대학에서는 학생들로부터 인기가 적은 학과는 폐과하고, 사회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학과는 증과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사회변화를 직시하여 시대가치에 맞게 고등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개선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노동시장의 수요공급이라는 함수에 얽매어 일부 학문을 유보하고 제거하는 것은 미래사회의 발전을 위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교육의 수월성은 여러 분야의 학문들 사이의 균형적 발전아래 달성될 수 있듯이, 이를 통해 교육의 공공성 또한 자연스럽게 신장될 수 있다.

한국 대학의 역설적 현실은 다음의 몇 가지 통계에서 잘 알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84%의 대학진학율은 겉으로 보기에 고급인력의 양성에서 한국이 다른 나라들을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미국, 일본, 독일의 50% 안팎의 대학진학율을 훨씬 뛰어 넘는다. 한국이 학력이 지배하는 사회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만, 이러한 교육인플레 현상의 배경에 직업교육에 대한 경시가 일반 대학의 팽창을 가져오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직업학교를 나온 독일이 일본의 젊은이들이 미래의 장인으로 세계를 누빌 때 우리나라 학생들은 직업의 안정성을 위해 공무원시험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학력의 중시는 대학입시에서 과도한 경쟁을 몰고 오고 있다. 이러한 지나친 대입경쟁과 과열로 인해 초등, 중등 교육 과정이 지식과 인격의 함양을 위한 어린이들의 훈육과 학습 과정을 왜곡하고 변질시키고 있다. 초등, 중등 교육은 고등교육에 의한 예속화로 인하여 자기충족적 교과과정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국민 중 75퍼센트가 교육에 만족하지 못하는 가운데 사교육비가 무려 연 40조를 넘고 있다.

지나친 입시경쟁을 피해 한국을 탈출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초등, 중등 학교 학생 중 유학을 위해 출국한 수자가 1998년 불과 1,562명이었으나, 2002년에 10,132명으로 1만명을 돌파한 이래 2005년에 20,400명으로 2만을 넘고 2006년 29,511명에 달하고 있다. 근래에 이를수록 고등학생 보다 중학생, 그리고 중학생 보다 초등학생의 유학이 급증하고 있는 것도 주목을 요한다. 대학 이상의 과정에 입학하는 해외 유학생의 수자도 2003년 15,903명에서 2004년 187,683명 2005년 192,254명 2006년 193,364명, 그리고 2007년 현재 217,959명을 기록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미국 27.1%, 중국 19.4%, 일본 8.7%, 영국 8.4%, 그리고 호주 7.6% 등으로 유학을 가고 있다. 특히 한국유학생이 미국과 중국에서 공부하는 세계 여러 나라들의 유학생 중 가장 많다는 사실에서 과도한 유학열풍을 읽을 수 있다.

어떠한 구조개혁인가

결국 대학 개혁의 기본 방향은 양과 질에서의 구조개혁이다. 저출산에 따른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해 작년의 56만명 고졸자는 2015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하여 2050년에 이르면 지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28만명에 그칠 예정이다. 지방은 물론 수도권 대학도 정원미달의 사태를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다. 퇴출, 연합, 통합 논의가 나오는 배경이다. 실제로 지방과 중앙의 여러 대학들이 짝짓기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제대로 통폐합이 이뤄지려면 적실한 구조개혁이 전제되어야 한다. 구조개혁하면 의례 학사편제를 바꾸는 것으로 이해한다. 교과과정, 교육내용, 교육방법의 개선에 대한 관심이 빠져있다. 구조개혁의 성패는 학사개편 보다 교육의 질 제고에 달려 있다. 요즘은 대학생들이 대학원에서 공부하거나 기업에서 일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는 학내외 비판은 우리 대학교육의 현주소를 말해준다. 시대의 변화를 선도하기는커녕 따라가지조차 못하는 교육을 시키기 때문이다.

구조개혁이란 몸집을 가다듬는 것과 같다. 군살은 빼되 근육은 불리는 것이다. 이론과 실천이 같이 가는 교양교육과 전공교육의 개선만이 미래창발적 인재 육성을 보장한다. 특성화도 중요하고 학사개편도 필요하다. 교과과정, 교육내용, 교육방법의 혁신은 근육은 불리되 군살은 빼는 효과를 갖는다. 우리는 지난날 구조개혁을 유사학과 통폐합으로 오해함으로써 현재 많은 대학들이 기형적인 학사구조를 갖고 있다. 특히 지나친 시장논리의 도입은 기초학문의 고사와 취약학문의 배제를 가져왔다.

교육이 백년대계라는 말은 가장 중요하면서도 효과가 늦게 나타나는 의미로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오늘의 대학개혁에 한국의 미래가 달려 있다. 지금 당장 수요가 없다고 하여 특정 학과를 닫는다면 미래의 필요 인력을 감당하기 어려워진다. 인재와 학문은 하루 아침에 키워지지 않는다. 학교 특성을 살리는 구조개혁, 수요자 중심을 넘어서는 구조개혁, 인재를 키우는 구조개혁, 즉, 구조개혁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한국 대학의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외과적 수술 못지않게 내과적 치료가 필요하다. 대체로 한국의 대학은 미국의 학제에 따른 고등교육의 이념과 목표를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고등교육의 형성과 발전과정에서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주입된 독일식 교육철학과 일본식 교육방법, 그리고 해방이후 도입된 미국식 교육내용이 혼효되어 있다. 이 점에서 우리는 대학 구조개혁을 한국적 고등교육의 이념과 목표를 만들어 간다는 종합적이고 거시적 안목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미래 한국에 요구되는 지식과 학문 체계의 준비, 교육과 연구의 조화, 인적자원의 개발, 학사제도의 개혁, 교과과정의 개편 등과 같은 사안이 최소한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대학 구조개혁은 실속 없는 외형변화로 그칠 위험성이 크다.

한국의 경우 고등교육은 21세기 지식기반의 정보사회의 패러다임에 걸 맞는 선취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대학은 사회변화를 위한 지식창출의 산실이면서도, 역설적이게도 사회변화에 둔감한 지식전수의 장소이다. 그러나 지구적 표준의 등장, 사회경제구조의 변화, 평생학습사회의 도래, e-교육의 국제적 보편화, 공동체에 대한 시민교육의 필요성, 배우는 복지(learnfare)의 다양화 등은 대학에 대해 새로운 역할과 기능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적 여건변화는 앞으로 대학의 존립근거를 부정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대학은 한편으로 범용적 지식을 생산해 내면서 다른 한편으로 실무적 훈련을 담당해야 하는 이중적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모든 대학이 범용적이고 실무적 교육을 모두 포괄할 수는 없다. 이것이 나라마다 경제현실과 사회수요에 맞게 연구중심대학, 교육중심대학, 직업교육대학 등으로 역할배분을 하고 있는 이유인 것이다.

교양교육의 딜레마

대학에 들어와 자기계발과 인격함양을 위한 교양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지적체(智德體)를 갖춘 인성교육을 위한 교양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나의 짧은 경험에 비추어 보면,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교양교육을 자기의지에 의해 선취적으로 받을 만한 여건에 있지 못한 것이 한국의 현실이라고 말하고 싶다. 대학교 1학년 새내기들은 그래도 마음이 열려 있다. 인생의 진리를 알고 싶어 동서 고전이나 한국 소설에 대한 관심도 적지 않다.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사회봉사도 하고, 그리고 NGOs에도 참여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2학년에 되어 자기가 원하는 학과나 전공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봄에서 가을 학기로 바뀔 때 따라 교양교육에 대한 의지를 점차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다소 역설적이지만 자기중심적이면서도 외부의존도가 높은 것이 오늘의 한국 대학생들의 자화상이다. 대학졸업후 진로를 고민하면서 자신의 세계관과 가치관에 따르기 보다 부모나 친지의 의견을 적극 수용한다. 결국 장래 안정적 취업을 위해 각종의 공공과 민간 부문의 시험에 매달리게 된다. 실사구시(實事求是)이긴 하나 실용주의라기 보다 현실타협에 가깝다. 그러다보니 교양교육은 졸업을 위해 필요할 뿐이지 자기계발과 인격함양을 위한 것으로 살아남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 결국 학력중심의 취업구조를 지닌 한국사회의 근본 변화가 전제되지 않는 한 교양교육의 딜레마는 영원한 숙제로 남을 수밖에 없다.

세계화 시대에는 다(多)문화적 감각과 능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 한 나라가 직면한 문화 접변

과 충돌을 넘어 세계인류가 걸머진 문명적 과제를 대면하고,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국제화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이것은 다(多)언어적인 교과과정과 다(多)인종적 생활체험을 포함하는 교육, 연구, 사회봉사, 문화활동을 대학에 요구하고 있다.

이점에서 한국의 대학이 국제화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바깥으로 나가는 세계화뿐만 아니라 안으로 들어오는 세계화를 수용하고 대응하기 위해 국제화가 절실하다. 실상 작금 한국의 거의 모든 대학들이 국제화를 표방하고 있다. 세계화라는 시대변화에 맞추어 대학의 국제화를 부정하기는 쉽지 않다. 문제는 국제화가 대학 교육과 연구의 수준 향상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학들은 교과과정에서 영어강의의 숫자를 늘이거나 외국인 교수를 채용하는 것을 국제화로 오해하고 있다.

지구인류적 안목과 전망을 갖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국사회와 문화에 대한 정체성에 국제적 통찰력을 갖는 교육과정을 대학이 마련해 주어야 한다. 국경이 무너지는 시대에 한국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건전한 시민적 양식과 자질을 가지면서 지구적 문제의식아래 한국적 가치와 문화를 재창조 할 수 있는 글로벌한 인재가 필요하다. 한국의 대학은 여전히 우수학생의 선발을 통해 일류대학에 머무르려는 구시대적 발상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세계화의 도전을 총합적 판단력, 창의적 구성력, 비판적 사고력으로 응전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길러 낼 수 있도록 교육, 연구, 사회봉사, 문화활동 면에서 일대 쇄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해결책을 찾아

대체로 한국의 대학생들은 교양도 약하고 전공도 약하다는 학내외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러한 대학교육의 부실은 교양교육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양교육을 협의의 의미로 받아들여 통상 전공교육과 대치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 교양교육 강화가 전공교육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통념이 교수와 학생과 행정가들 사이에 만연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세계화 시대의 시장논리 아래 실용성을 중시하는 나머지 지나친 전공주의의 추구가 그러한 오해를 낳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학은 교육 수요자의 성향에 맞는 교육의 제공뿐만 아니라 공급자의 입장에서 지식을 창출하는 곳이다. "넓고 깊은" 교양교육을 통해 범용적 지식과 전문적 지식은 서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가야한다고 본다.

교양교육을 통해 한국사회에 필요한 선량한 자유시민, 그리고 유능한 엘리트를 동시에 양성할 수 있다. 나는 교양교육을 "전공교육에 기초가 되는 인문, 사회, 자연, 의학, 공학 등 분야에서의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교육"으로 정의하고 싶다. 두루두루 알면서 깊이를 더하기 위한 일종의 보편(普遍)교육이자 통식(通識)교육이다. 교양교육을 학사과정에서의 단순한 통과외례로 보아서는 결코 안 된다. 교양교육과 전공교육은 서로 경쟁적이라기보다 보완적이 될 수 있다.

오늘날 모든 학문이 문.이과 구분없이 융합과 통섭으로 나아가고 있다. 동양에서는 이미 일찍이 문학, 역사, 철학에 부가하여 치지(致知), 격물(格物), 궁리(窮理)를 아우르는 교육이 강조된 바 있다. 이러한 인문, 사회, 자연, 의공 현상의 상호 침투와 복합을 적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주제아래 통합적인 내용들을 다루는 핵심 교양과목을 적극 확대,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보편화와 전문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전공같은 교양'이 우리가 목표해야 할 핵심교양 교과목이다.

이러한 일종의 매트릭스 성격을 갖는 새로운 교과목의 신설은 현대사회의 전문화 와중에서 파편화된 교육에 매몰되어 있는 사고와 실천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거시적이고 통합적인 안목과 지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통해 세계 사회와 문화에 대한 종합적 접근, 다양한 세계관과 가치관의 이해, 한국

적 심성과 양식의 배양, 더불어 사는 공동체적 능력의 배양, 올바른 가치판단과 비판능력 제고, 그리고 상황정의와 문제해결 능력의 향상이 가능해 질 수 있을 것이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 표시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